

# JAPANESE DOCUMENTS CENTER NEWSLETTER

## ▶신임소장 인사

### 일본자료센터 신임소장 인사

김장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일본자료센터가 설립되고 올해로써 6년째이다. 그 간 본 센터는 한국에서의 일본 연구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여 왔다. 특히 본 센터의 이름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일본 연구를 위한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 정리,

확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고 이를 통해 오리지널한 일본 연구를 위한 초석을 깔았다. 또한, 국내의 주요 일본 연구 그룹에 자료와 연구 시설 및 포럼 지원 등을 통해 일본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나름대로 기여하였다. 특히, 한국에서의 일본연구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함으로써 일본연구의 방향성을 평가하고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이러한 업적을 이루어 내는 데에는 일본연구에 대한 확고한 정열을 지니고 센터를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길러 온 김 용덕 초대 소장의 역할이 컸다. 일본학계의 선구자로서 국제적 명성을 지닌 김 용덕 소장은 과감하게 대규모 펀드를 확보하여 갓 태어난 일본자료센터를 일약 국제적인 기관으로 도약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한 성장을 토대로 하여 이제 일본 자료 센터는 또 한번의 도약을 이루어 명실공히 세계적인 일본 연구센터로 변신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자료센터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연구를 조직하고 생산하는 자체 연구기능을 갖춘 연구소로서의 발전도 도모해 나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활동과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기능들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자료센터로서의 기능을 확고하게 지속해 나갈 것이다. 펀드 상의 어려움 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의 기초는 뭐라고 해도 자료의 양과 질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가능한 더욱 강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다. 한편, 한 기관이 독자적으로 자료를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외의 주요 기관들과 자료 네트워크를 수립하여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둘째, 국내의 일본 연구 포럼 지원은 원칙적으로 유지될 것이지만 본 연구소의 자체 연구 기능과 통합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즉, 본 연구소의 연구 테마와 관련되는 외부 연구 포럼과 결합하는 형태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한편, 금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지원으로서 대학원생들의 연구회 지원을 들 수 있다. 대학원생들로 구성되는 3~4개 연구팀에 연구지원을 함으로써 일본 연구의 저변을 넓히고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대학원생들의 일본 현지 자료조사를 위한 지원도 실시하고자 한다.

셋째, 한국에서의 일본연구현황 조사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통계 조사에 기초한 양적인 현황 파악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는 질적인 현황 파악에 주력할 것이다. 국내의 주요 연구업적들에 대한 치밀하고 비판적인 서평 작업과 일

본학 각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한 정기적인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일본연구의 국내, 국제적인 동향과 현황을 파악해 나갈 것이다. 물론 양적인 통계조사도 정기적으로 계속 실시하게 될 것이다.

그 밖에 센터의 사업으로 계속해 오던 일본사회과 교육자초청연수라든가 한중일 국제회의 등도 더욱

내실있게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일본 연구센터로 확대 발전해 나갈 본 자료센터가 서울대학교만의 연구소가 아니라 한국에서 일본 연구의 중심으로 기능할 열린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일본을 공부하는 연구자 제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마지 않는다.

▶일본연구동향

## 日本研究座談會 시리즈 제1회 國內外 日本研究現況

### 1. 일본 연구 좌담회 개요

본 일본센터에서는 국내외 일본연구의 현황이라는 주제로 제1회 일본연구좌담회를 개최하였다. 2003년 5월 28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개최된 이 행사에는 일본노동사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하버드 대학(Harvard University)의 라이샤워 일본연구소(Edwin O. Reischauer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의 소장을 맡고 있는 앤드류 고든(Andrew Gordon) 교수를 초청하여 “How to study Japan”이라는 테마로 미국에서의 일본연구의 전개 과정과 현재 일본연구의 동

향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세계적 일본연구의 동향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국내 일본연구의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본 좌담회에 참가한 국내외 연구자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강연자: 앤드류 고든(Andrew Gordon) 교수, 하버드 대학 라이샤워 일본연구소(Harvard University, Edwin O. Reischauer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사회자: 김장권 교수(서울대)

토론자: 김영작 교수(국민대), 이종구 박사(성공회대) 김현철 교수(서울대), 최장근 박사(서울대)



앤드류 고든 교수의 강연을 중심으로 국내의 토론자가 참석하여 주로 역사학을 중심으로 한 일본연구의 현황 전반에 대한 진지하고도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류행사를 통해 한미 양국의 일본연구분야에 원활한 정보교환 및 한층 깊어진 상호협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주요 토론자 이력》

##### ▶김영작 교수(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전공분야: 일본정치외교사/동북아국제정치  
1999-2000 일본 東京大學 國際關係論科 객원교수  
1995-1997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1994-1995 미국 하버드대 교환교수  
1992-1994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 ▶이종구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전공분야: 일본의 노동문제  
1995-1998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1992-1995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1991-199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2. 미국 내 일본연구의 동향에 대하여 앤드류 고든 교수

이하에서는 미국에서 일본학이 어떻게 연구되어 왔으며 현재 미국 내 일본연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미국의 일본연구는 한국과 비슷하게 상당히 괴로운 경험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었던 일본연구가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일본연구의 시작은 전쟁 중 “적을 알기 위해” 시작되어서 그 성격이 꽤 지속되어온 면이 있다. 물론 전쟁이나 국제관계와는 관계없이 문학이나 문화 등의 방면에 흥미를 가진 1950년대 일본문화의 제1인자로 유명한 도널드 킹 교수와 같은 학자들도 있었다. 이 교수의 일본연구도 전쟁 중 미군의 일본자료의 번역 등에서 시작되었는데, 제2세대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받고 연구한 것이다. 이들의 연구는 일본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라는 출발점의 인식을 시작으로 했다.

이러한 일본연구의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경제가 부활하여 놀랄만한 성장을 보였던 시기부터로서, 국제 정세 상 공산권과 미국과의 대립이 깊어진 것도 한 요인이었다. 전략적으로 일본을 보는 눈이 점령기 때와는 달라져서 1946, 7년부터 일본을 적국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동맹국으로서 그 위치가 바뀔과 동시에, 이번엔 일본의 성장을 모델로 보아야 한다는 일본연구의 동향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버드의 라이샤워 교수도 그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일본을 근대화의 비마르크스주의적인, 바람직한 공산주의적인 모델로서, 비구미세계에 있어서의 모델로 삼고자 했다. 다른 학자에게서도 이러한 인식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과거에는 실패라고 평가 받은 것이 다른 시각으로 재해석되기도 했는데, 그 예로 첫 번째 시도의 실패라고 평가 받던 전전 정치가 실패였던 것과 동시에, 전후 민주정치의 씨를 낳은 하나의 중요한 체험이기도 하다고 해석되었다. 이러한 연속성, 장래성이 강조된 차원론으로 초기의 1940년대의 비교적 비판적인 역사인식에서부터 좀더 긍정적인 인식이 주류가 되어, 이른바 근대화가 성공한 이유를 찾는 등의 연구가 5, 60년대부터 70년대초반까지 주류를 이루었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에도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대를 정체의 시대가 아닌 다이내믹한 자본주의의 근원으로, 공업화의 초기 단계였다고 다룬 연구도 상당히 중요시되었다. 예를 들어 버클리의 스미스 교수는 상당히 중요한 연구자로서 일본의 공업화, 일본의 산업혁명의 근원은 명치시대의 식산흥업적(殖産興業的) 제작이전부터 있었다고 하는 점을 강조했다. 지금은 일본에 있어서 가설이 되어있는 이 견해는 초기에는 비교적 새로운 관점으로서 다루어졌다.

이에 대한 반발은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대두되었다. (고든 교수가 연구한 대상연대도 이 시기로 이러한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특히 이 세대에 있어서 베트남전쟁이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이다. 그 중 하나는 미국에서 특히 전쟁 중 반전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은 기존의 자본주의모델이 아니라 혁명모델의 존재를 제기했다. 그리고 일본만을 성공의 모델로 하지 말고 다른 곳도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과 일본의 문제

성도 강조하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그때까지의 일본정치사연구 혹은 정치학연구, 경제학연구 등 일본연구가 엘리트 중심이었던 점에 반발한 것이다. 그때까지 일반인들의 생활은 거의 연구대상이 되지 않거나 그러한 학자는 일본의 마르크스주의적인 학자이므로 별로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 주류였기 때문에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생기게 되었다. (이것이 고든 교수가 노동사를 연구하게 된 첫번째 이유이다.) 노동현장 등에서부터 여러 갈등과 분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공업화정책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움직임의 결과로서 전개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90년대에 들어서는 일본연구의 동향에 큰 변화가 있었다. 최근의 일본연구 동향은 연구량도 많고 연구분야도 다양해져서 하나의 중심적인 동향을 집어내는 힘들지만, 역사학 및 문화인류학에서 보여진 몇가지의 경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98년 중반부터 학문자체가 두 가지 의미에서 바뀌었다. 정치학, 경제학 분야에서는 “rational choice”에 중점을 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일본지역연구에도 영향을 끼쳤다. 각 문화별 언어별 특수성을 어떤 의미에서는 부정하는 연구동향이 그것으로 과거에는 포스트모더니즘에서도 이것을 동조하는 편이었는데, 90년대 후반에 이르러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픽션으로 대상화시키는 계기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일본이라고 하는 국민성을 처음부터 고정되게 전개해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느 시기의 정책에 의해 생긴 것이라는 것이다. 즉 일본이라는 존재가 어떤 식으로 인식되었는지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움직임이 생겼다. 일본역사의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연구했다.

최근 일본연구의 방향이 어떻게 변했는가는 먼저 일본을 대상으로 할 때 계층적으로 아래와 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을 보아야 한다고 하는 인식이 깊어졌다. 일본인의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면, 일본적인 아이덴티티를 그 정도로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보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로, 오키나와나 아이누의 연구, 식민지와 제국의 문제 등이 이에 해당되는 테마이다. 이렇게 일본의 다양성 혹은 일본이라고 하는 존재의 문제가 연구되었다.

또 하나는 비슷한 대상으로 여성사에서 젠더

(gender)사로의 변환이다. 여성은 상대적으로 무시되었으므로 여성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아이덴티티가 있으면 남성의 아이덴티티도 있다고 하는 상호관계를 다룬 연구도 증가했다. 그러므로 연구대상으로서 일본은 상대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학생자신도 변화했다는 점이다. 소위 대학의 국제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미국 내에서 일본연구를 하는 학생 중 미국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줄고 있고, 이에 비하여 일본 등 타국적 출신의 학생이 늘고 있다. 이로서 보는 관점도 다양해졌다. 테마나 관심이 주변의 현상이나 보다 넓은 현상으로 확대되는 것도 학생의 이러한 상황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 3. 앤드류 고든 교수의 연구 방향 변화

처음에는 엘리트 중심의 역사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노동사를 약 20년간 해왔는데 이제는 연구대상을 노동에서 소비로 바꿨다. 계급적으로는 노동자계급이 아닌 중산계급을, 전전부터 전후에 걸친 근대소비사회가 어떻게 성립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여기서 소비자라는 개념에 젠더라고 하는 관점도 도입하려고 한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선택해서 그 물건의 역사를 추구하면 소비사회의 성립이 여러 측면에서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재봉틀의 경우 소비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생산의 도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일본에 있어서 재봉틀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소비사회의 생활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점을 시작으로 일본 근대소비자상의 형성과 변환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 4. 한국 내 일본연구 동향 및 토론 — 김영작 교수(정치학을 중심으로)

한국에도 미국 내 일본연구의 역사적인 변화와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그와 비슷한 변환이 있었다. 국내의 경우도 거의 무에서 시작한 미국의 사정과 다를 바 없었는데, 특히 1945년 해방이후 65년 한일조약이 성립될 때까지 의식적으로 일본연구를 피했던 경향이 있었다. 여기에는 복잡한 이유가 있는데, 식민지 지배관계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에 대한 반발, 그리고

이에 파급된 일본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도 있었고, 이승만 정권의 반공, 반일이라고 하는 정황 속에서 일본연구를 하고자 하는 관심이 없었다는 점도 한 요인이었다. 있다고 해도 일제비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일관계사, 또는 일제시대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이 주요 대상이었다.

1965년부터 80년까지의 시기에 이르러서는 감정적인 연구나 역사관계에 조금 거리를 둔, 순수한 일본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한일관계와는 별개로 “JAPANESE STUDIES”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어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연구형태는 대체로 1980년대의 일본연구로 미국의 제2차세대와 같다. 한일조약이후 일본은 비판의 대상임과 동시에 협력의 대상으로서 파트너 관계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하여 한일관계를 어떻게 청산해야 하는가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국내의 본격적인 일본연구의 시작은 역시 1990년대에 들어, 미국의 여러 정치학적인 방법을 도입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로서 일본연구가 한일관계의 정치적인 관계에 있어서 자리 잡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평가 및 관심이 정치적 환경에 규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향은 일본의 자국 내 일본연구에서도 보인다. 그러므로 일본에서는 전후 자신들을 구미와 비교해 전전의 일본에는 무엇이 모자랐고, 일본의 제국주의는 무엇이었는지 등 자국을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관점이 지속되었는데, 1960년대에 일

본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가치관의 상대화가 늦춰지는 형태로서 일본에도 좋은 점이 있다는 관점으로 미일비교 및 일본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1980년대에는 일본이 미국을 뒤쫓는 단계가 될 것이고 일본에는 미국에는 없는 독자적인 장점이 있으며,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식의 경영방침이나 일본적인 시스템경영 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다. 1992, 93년에 이르러 미국은 더 이상 모델이 아니고, 일본은 이미 쫓아갈 모델이 없다고 하며 독자적인 제3의 모델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자신에 가득 찼다. 새로운 모델은 시스템의 변화만으로는 안되고, 아메리칸 스탠다드를 하나의 이론으로서 설정해 두고 실제 미국 모델을 그대로는 아니고 일정부분 침착을 가하는 등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아직 모색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Q. 김영작 교수: 이런 인식이 맞다면 고든 선생이 지금까지 엘리트 중심에서 노동자로의 관점이 변화된 연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질렸다고 하는 의미가 이미 충분히 연구되었다는 것인지 설명되지 않는다. 이러한 역사의 주요 흐름을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새롭게 등장한 소비자사회의 측면을 통해서 무엇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인가. 명치시대의 경우 노동만으로는 일본의 역사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일본을 이끈 것은 엘리트 중심적인 관료, 정치지도자라고 하는 엘리트중심의 리더십이 일본을 만들어 간 것으로, 노동자들은 물론 의미는 있지만 그것이 시대를 만들어 간 주류의 세력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노동운동사로 본 일본사로 현대의 일본사를 설명할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

A. 고든 교수: 먼저 노동자 등의 하위 계층을 연구한 것의 메리트는 다음과 같다. 이전 세대의 엘리트 중심 연구에 대한 반발만으로 노동자문제를 연구하려고 하면 미숙한 연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신의 연구가 어디까지 도달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적적으로는 양쪽을 다 취한 노동사라기 보다는 노사 관계를 다루었다. 경영자, 국가 그리고 노동자의 삼각관계를 보는 것이 중요했다.

Q. 김영작 교수: 미국 내에서 일본을 보는 관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A. 고든 교수: 미국에서 일본을 보는 관점은 두, 세 개의 큰 흐름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주의,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아메리카 모델은 근 10년 동안 세계 어디에나 모델로서 각광 받아온 것에 비하여 일본의 근 10년은 불황의 늪에 빠진 실패작이었다. 미국 내 일본연구자, 특히 경제학자, 정치학자들이 갖고 있는 관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일본이 미국처럼 해야 한다고 설교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일본 모델이 뛰어나다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모델도 일방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것에는 저항감이 있다. 그러므로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 선 관점도 있다. 내 포인트는 이른바 중신고용, 연공서열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이러

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아직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미국처럼 바뀌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거나 또는 '일본은 왜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나'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자세가 미국이 일본의 정치경제에 대해 갖고 있는 자세이다.

### 5. 한국 내 일본연구 동향 — 이종구 교수(사회학을 중심으로)

사회학, 인류학 분야에서의 일본연구는 한일관계나 재일동포 문제를 제외한 일본 그 자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1990년대에 들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내부의 정치적인 문제나 국제적인 지위의 주장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 세계화의 흐름으로 한국에서 독립적인 연구자가 직접 일본에 가서 자료를 모으고 연구를 하게 된 것이 90년대로서 이때부터 문제의식, 주로 생활이나 여성문제 그리고 일본의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일본은 55년 체제와 전후개혁아래서 사회적으로 평등한 능력주의 사회가 되었다. 지금은 평화나 평등사회라는 키워드는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평등사회나 교육사회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을 받고 있다. 90년 이후 근 10년간 국내 일본연구에서 일본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혹은 일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가 등의 목적론적인 연구에서 과학으로서의 일본연구가 중요하다고 하다고 하는 분위기로 정착되었다고 하는 것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국내 일본 연구자들의



과제는 한국기업이나 정부 시스템, 특히 한국의 법률 체계는 일본의 제도나 법률을 그대로 채용해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모델을 그대로 실용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막기 위한 일본연구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사회를 상대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보는 견해를 보급시키는 것이 현재 국내 일본 연구자들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 6. 맺음말

앤드류 고든 교수는 라이샤워연구소와 같은 우수한 연구소를 추구하고 있는 본 국제대학교 일본센터의 발전에 대한 조언으로 연구소 내의 도서관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를 강조했다. 연구소의 재정의 대부분을 도서관에 투자하는 것은 곧,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를 더하는 연구소의 재산이 될 것이다. 또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으면 좋은 연구자는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는 법이다.

앞으로 일본연구를 시작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정열적으로 도전할 것을 추천했다. 스스로 연구에 대하여 정열을 갖고 의욕적으로 문제의식을 제기하여 해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앞으로 할 연구에 대하여 자신에게 재미있고 흥미가 있으며, 해명하고 싶은 테마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

## ▶ 2003년 사업안내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일본자료센터 2003년 일본연구기반조성사업 내용

## 1. 일본자료센터의 취지 및 목적

1996년 12월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이하 본원)은 교내에 일본연구 기반을 조성한다는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여러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다. 그 방안의 하나로 日本國際交流基金(The Japan Foundation)에 「일본연구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제안」을 제출한 바, 본원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1997년 9월 1일부터 지원을 받아 왔다.

2003년에 들어서서는 기존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차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사업성과와 방향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상황에 맞게 현행사업의 일부내용을 대폭 수정하였다.

## 2. 일본자료센터의 운영체계

본원은 일본자료센터의 내규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와 연구협력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각각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의 주요한 방향을 결정하고 주요 사업 및 그 실행 방법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관이다. 일본연구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연구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센터의 전국적인 연구지원의 원활화를 위한 제반 사업안건을 결정한다.

현재 운영위원회는 국제대학원장, 일본자료센터소장, 그리고 위촉운영위원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4명). 현재의 구성원은 국제대학원장 김용덕 교수, 일본자료센터소장 김장권 교수(이상 당연직),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정진성 교수, 외교학과 장인성 교

수(이상 위촉운영위원) 이다.

(2) 자문위원회

연구협력자문위원회는 일본자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하고, 각 분야에서 가능한 협력을 수행한다. 현재 제2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이다.

3. 일본자료센터의 위상 및 5년간 사업실적

(1) 현재 일본자료센터의 위상

현재 일본에 대한 서울대학교의 내부 분위기는 아직까지 차가운 것이 사실이다. 서울대내에 일본관련 학과를 설립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으며, 본격적인 일본어 내지 일본학 도입에 반대를 표명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내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난 5년 전과 비교해 볼 때 놀라울 정도로 호전된 것이 사실이다. 이는 그 동안 꾸준히 지속되어 온 인적 교류를 비롯한 일본연구의 확장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또한 2002년 월드컵공동개최 결정 등을 통해 한국내 사회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일본에 대해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일본 문화의 개방 등을 통해 구축된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분위기는 이제 확고한 흐름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역시 이러한 분위기에 맞추어 가고 있다. 올 초 일본어강좌(3학점)가 해방후 최초로 공식적인 학점 취득 단위로 인정받은 것은 이러한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와 같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서울대내의 전반적인 변화는 일본자료센터의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 서울대내의 유일한 일본관계 공식 기관이 일본자료센터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서울대내에 이러한 성격의 기관이 설치될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나, 그 동안 이 만큼 일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일본자료센터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 서울대내의 분위기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자료센터가 여러 방면에 걸쳐 수행하는 활발한 활동은 멀지 않은 장래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서울대내 일본관련학과 설립에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일본자료센터의 5년간의 사업실적

① 일본자료센터의 역할

일본자료센터는 단순히 서울대학교내의 연구지원 기관에 역할이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 일본자료센터는 한국내 각지에서 일본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연구자 및 학생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범위를 서울대학교의 틀을 넘어 전국에 걸쳐 있다. 그런 점에서 일본자료센터는 실로 한국내에서 일본학관련 자료를 국내외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전국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자료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한 역할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전국 각지의 일본학 관련 연구자 및 학생들에게 일본자료센터내에 구축된 홈페이지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각종 자료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누구나 일본의 학술정보 검색을 포함하여 일본자료센터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연구자들에게 포럼을 마련하여, 서로 학술토론과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매년 한국내 일본학 연구동향과 해외에서의 일본학 연구동향을 조사하여, 이 정보를 국내외에 전해주고 있다. 해마다 한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학 관계 연구성과를 모아서 관심 있는 해외 일본학 관계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학 관계 연구동향과 정보를 모아서 한국 내 일본학 관련 연구자·연구기관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셋째, 한중일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연구기관 사이의 일본학 관련 정보교환을 촉진하고 있다. 이것은 동아시아 3국간에 긴밀한 학술정보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향후 상호간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제공받기 위한 작업이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동아시아 3국의 학자간에 인적교류가 보다 활발해 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일본자료센터는 단순히 서울대내의 학내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한국내 일본학관련 정보제공의 센터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② 일본자료센터의 성과

일본자료센터가 서울대학교의 공식적인 학내기구로서 설치된 이후 본 센터는 여러 사업추진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일본자료센터가 서울대학교뿐 아니라 한국내 일본학 연구를 위한 지원 센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이다.

일본자료센터는 해마다 한국내 일본학 연구성과를 담은 관계책자를 발간하여 이 자료를 국내외 일본학 관계기관 및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내외 일본관련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이 책자를 통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 국내외 일본학 연구성과와 연구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연구포럼지원을 통해 형성한 인적네트워크의 구축이다. 현재 일본자료센터의 지원을 받아, 일본정치연구, 일본학교육협의회, 일본사학사연구, 한일역사연구회, 일본의 국제화연구라는 5개 포럼이 가동중이다. 이러한 연구포럼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저명한 한국내 일본학 관련 연구자들이 거의 망라되어 있으며, 포럼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연구성과를 교류하고 있다. 일부 포럼의 경우, 이러한 연구성과를 단순히 공유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책자형태로 발간하여 보다 많은 일반 대중에게 일본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셋째, 일본자료센터가 서울대내의 분위기 변화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자료센터의 다양하고 활발한 움직임은 서울대학교 내 일본학 관련 교육 및 연구 기반 조성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는 올해부터 일본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정규과목으로 고급일본어 강좌(3학점)를 개설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게 하였으며, 동양사학과의 경우는 「일본의 봉건사회」(3학점)라는 전공과목을 처음으로 개설하였다. 일본학 관련 학문의 강화는 비단 일본강좌 확충에 그치지 않는다. 교수인력 보충도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정치학을 전공으로 하는 김장권 교수가 국제대학원 교수로 취임하였으며, 長田彰文 교수가 초빙교수로 방한하여 국제대학원에서 일본관계 강좌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울대학교가 일본학 관련 교육 및 연구기반을 강화하게 된 것은 일본자료센터의 활발한 활동에 영향받

은 것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넷째 일본자료센터의 제공하는 자료 및 정보의 충실성이다. 일본자료센터의 커다란 특징의 하나는 정보서비스 제공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단순히 자료대출에 국한되는 일반 도서관과 크게 차별되는 특성을 갖는다. 일본자료센터의 홈페이지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구축된 각종 정보서비스시스템은 전문 연구자는 물론이며, 일본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신진연구자, 대학 및 대학원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하지만, 일본자료센터가 자료수집에 소홀한 것은 아니다. 그간에 일본자료센터가 확보한 도서와 자료는 총 1,779권에 달한다. 그 외에도 많은 종류의 CD·비디오 등의 영상자료를 구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는 서울대내의 학내관계자를 포함하여 일본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도서 및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오픈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섯째, 인적교류를 통한 한일간의 우호개선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그 한 예가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일본 사회과 교육자 초청연수이다. 일본자료센터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요청을 받아 일본 각지에서 선발된 중·고교사 25명을 대상으로 한 연수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시하였다. 이 행사가 실행에 옮겨질 수 있었던 것은 서울대학교내에 일본자료센터라고 하는 위탁 기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의, 현장교육, 지방답사로 기획된 이 연수를 통해 일본인교사들은 한국에 대해 많은 지식과 소중한 경험을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교류행사를 통해 한일양국간에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일본자료센터가 핵심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 4. 일본자료센터의 2003년사업내용

향후 본센터의 사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내의 국내일본연구지원을 위한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거점시설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외 일본관련 연구자 및 기관 등을 네트워크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자료수집

본원내에 일본연구관련 문헌자료(도서 등) 및 정보자료면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이를 위해 일본관련 연구성과단행본의 확충은 물론이거니와 사전류, 통계자료, 연구성과 색인, 백서류, 학술잡지류 등 일본연구의 저변을 강화할 수 있는 자료의 확충에 힘을 기울인다. 특히 한국내에 이와 같은 다양하고 풍부한 일본자료를 구비한 곳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자료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연구자에게 본 센터는 커다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차기사업에서는 이 분야에 보다 역점을 둘 것이다. 현재와 같이 단순히 도서 및 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일본내에 있는 1차 史料까지도 포함하여 방대한 일본관련자료를 수집하려 한다.

#### (2) 국내외 일본관계 학술정보 네트워크

현행 사업을 대폭 강화하여 기존과 같이 일본학술정보센터의 데이터 검색서비스와 日經텔레콤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본 센터 홈페이지의 전면 개편·조직화를 통해 학술정보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연구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신학술정보, 문헌, 영상정보자료 등을 입수하고, 연구 교류에 필요한 네트워크 및 각종 서비스 방안을 강구한다.

#### (3) 일본연구포럼지원

일본연구포럼의 경우, 지난 5년간 <일본의 정치경제연구>, <일본사학사연구>, <일본학교육협의회>, <한일역사공동연구>, <일본의 국제화 연구> 등 5개의 그룹을 지원해 왔다.

2003년에는 <일본 및 동아정세분석>, <일본의 로칼리즘, 내셔널리즘, 리저널리즘>, <한일관계>, <한일 국제포럼(국내외 연구자 주제별 콜로키엄)> 등 4개의 그룹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교수진으로 구성된 연구회 이외에 별도로 신진연구자 및 대학원생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회도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성연구자 뿐만 아니라 새로이 일본에 관심을 갖는 젊은 연구자의 연구의욕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려된다.

#### (4) 격년제 사업

- 한국 내 일본연구동향
- 일본관계 한중일 전문가 세미나

본 센터는 지금까지 「한국의 일본연구연보」를 출간하여, 「국내의 일본관련 연구기관 및 개별연구자조사」, 「국내의 일본관련 논저목록」, 「국내대학의 일본관련 교육과정 및 방법에 대한 조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왔다. 다만 이러한 사업은 특성상 매년 반복하기보다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차기사업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검토·분석하고 그 구성과 내용면에서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격년제로 실시하고자 한다.

본 사업을 통해 한국 내 일본연구동향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련기관 및 연구자들에게 자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활동방향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현재 국제학술 교류지원사업은 고유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는 3국의 일본연구 중요시설간의 상호 정보의 교환과 경험의 공유를 목표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다.

#### (5) 일본전공 대학원생의 자료조사 지원

2003년의 새 프로젝트 중 하나인 본 사업은 일본전공 대학원생들에게 일본현지에서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일본연구의 중장기적인 비약과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지원대상 대학원생의 선정은 서울대학교내 일본학 관련 대학원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로 선정하거나, 그 자격요건을 분명히 한 선정공고를 일본자료센터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에 게재하여 선정하는 방법으로 하되 매년 3~6명씩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 (6) 뉴스레터발행

현재와 같이 본 센터의 활동전반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연 4회의 『일본연구 News Letter』의 간행을 통해 신착자료, 정보서비스 이용방

법, 연구동향, 국내 및 국외학술회의 소개, 프로젝트 관련 정보제공 등을 전달한다. 또한 기존의 지역연구를 통하여 중요 연구성과도 공개한다.

(7) 일본사회과 교육자 초청연수

— Korea Foundation 동공주최

2002년 월드컵 한일공동개최를 기념하여 양국의 중·고교 사회과 교사들의 상호교환 연수를 통해 상

대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혀 상대국에 대한 교육이 보다 균형된 시각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양국 청소년들이 한일관계를 보다 깊고 폭넓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2000년부터 시작된 『일본사회과 교육자 초청연수』는 올해도 4회를 맞이하여 명실공히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 신착도서 안내

※아래의 도서는 국제대학원(140-1동) 자료실(404호)에서 열람 및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牧原憲夫, 『客分と僑民のあいだ』, 吉川弘文館  
 西川長夫, 『戦えの世紀を超えて—グローバル化時代の僑家・歴史・民族』, 平凡社  
 西川長夫, 『僑境の越え方—僑民僑家論序説』, 平凡社  
 西川長夫, 『アジアの多文化社 と僑民僑家』, 人文書院  
 西川長夫, 『僑民僑家論の射程—あるいは「僑民」という怪物について』, 柏書院  
 西川長夫, 『多文化主義・多言語主義の現在—カナダ・オーストラリア・そして日本』, 人文書院  
 西川長夫, 『地球時代の民族=文化理論—평 「僑民文化」のために』, 新曜社  
 西川長夫, 『ヨーロッパ統合と文化・民族問題—ポスト僑民僑家時代の可能性を問う』, 人文書院  
 西川長夫, 『フランスの解 —もうひとつの僑民僑家論』, 人文書院  
 西川長夫, 『世紀・換期の僑際秩序と僑民文化の形成』, 柏書院  
 西川長夫, 『幕末・明治期の国民国家形成と文化埒容』, 新曜社  
 西川長夫, 『米会回覽記を読む—1870年代の世界と日本』, 法律文化社  
 大塚初重・桜井清彦・鈴木公雄(編), 『日本古代遺跡

事典』, 吉川弘文館  
 六国史索引編集部, 『六国史索引』, 吉川弘文館  
 1. 日本書紀索引  
 2. 続日本紀索引  
 児玉幸多(編), 『標準 日本史掛図』(全10冊), 吉川弘文館  
 上横手雅敬(編), 『中世の寺社と信仰』, 吉川弘文館  
 原田敬一(著), 『国民軍の神話—兵士になるということ—』, 吉川弘文館  
 泉森 皎(著), 『大和古代遺跡案内』, 吉川弘文館  
 五味文彦・佐藤信の外, 『新 体系日本史』(全18巻・別巻2 中 第2,3,6,11,16巻), 山川出版社  
 五味文彦・佐藤信の外, 『日本史リブレット』(全68巻), 山川出版社  
 都市史研究会(編), 『年報都市史研究』(全8巻), 山川出版社  
 大口勇次郎・五味文彦の外(編), 『日本史史話』(全3巻), 山川出版社  
 地方史研究協議会(編), 『(増補改訂版)歴史資料保存機関総覧』, 山川出版社  
 森浩一(企画), 『シリーズ, 日本を知る—過去から未来に向けて』(全14巻), 大巧社  
 高橋康夫・吉田伸之(編), 『日本都市史入門』(全3巻), 東京大学出版会  
 黒田日出男・メアリーエリザベスの外(編), 『地図と絵図の政治文化史』, 東京大学出版会

地方史研究協議会(編), 『日本産業史大系』(全8巻),  
 東京大学出版会  
 千田嘉博, 『織豊系城郭の形成』, 東京大学出版会  
 『写真・絵画集成 新聞の歴史』(全3巻), 日本図書セン  
 ター  
 『図説 教科書の歴史』, 日本図書センター  
 福川秀樹(編著), 『日本陸海軍人名辞典』, 芙蓉書房出  
 版  
 主婦の友社(編), 『手紙・はがき・文書文例大事典』,  
 主婦の友社  
 国立史料館(編), (史料館叢書)『江戸時代の紙幣』(別  
 巻2), 東京大学出版会  
 総合研究開発機構(NIRA), 戦後製作資料研究会・岡  
 崎哲二(編集・解題), 『財閥解体・集中排除関係資  
 料』(全4巻), 日本経済評論社  
 大浜徹也・圭室文雄・宮田登・根本誠二(編), 『日本  
 宗教史研究文献目録』(全2巻), 岩田書院  
 秋原秀三郎・須藤 功(著), 『日本宗教民俗図典』(全3  
 巻・別冊), 法蔵館  
 山田竜雄・飯沼二郎・守田志郎・岡 光夫(編), 『日本  
 農書全集 第一期』(全35巻), 農山漁村文化協会  
 『日本農書全集 別巻 分類索引』  
 佐藤常雄・徳永光俊(編集), 『日本農書全集 第二期』  
 (全37巻), 農山漁村文化協会  
 外務省(編), 『外務省警察史』(全53巻・別冊1), 不二  
 出版  
 内務省警保局(編), 『昭和初期 政党政治関係資料』(全  
 4巻), 不二出版  
 内務省警保局(編), 『外事警察報』(全67巻・別冊1),

不二出版  
 内務省警保局(編), 『昭和初期 政党政治関係資料』(全  
 4巻), 不二出版  
 市古貞次(編), 『国文学研究書目解題』, 東京大学出版  
 会  
 安田元久(編), 『吾妻鏡人名総覧-注釈と考証-』, 吉  
 川弘文館  
 御家人制研究会(編), 『吾妻鏡人名索引』, 吉川弘文館  
 京都大学文学部(編), 『博物館の古文書』(全12巻), 思  
 文閣出版  
 京都府医師会(編), 『京都の医学史』(全2冊), 思文閣  
 出版  
 田中健夫(編), 『善隣国宝記・新訂続善隣国宝記』, 集  
 英社  
 『シリーズ「江戸」博物館』(全4巻), 芙蓉書房出版  
 渋谷慈鑑(編), 校訂増補『天台座主記』, 第一書房  
 笹間良彦(著), 『武家戦陣資料事典』, 第一書房  
 地方教育史文献研究所(編), 『日本近代地方教育史文  
 献目録』, 第一書房  
 東大法, 蒲島郁夫, 『現代日本の政治家像』(全2巻), 木  
 鐸社  
 東大法, 蒲島郁夫, 『有権者の肖像』, 木鐸社  
 大嶽秀夫, 『高度成長期の政治学』, 東京大学出版会  
 蒲島郁夫・竹中佳彦, 『現代日本のイデオロギー』, 東  
 京大学出版会  
 三宅一郎, 『政党支持の構造』, 木鐸社  
 三宅一郎の他, 『55年体制下の政治と経済』, 木鐸社  
 木村 幹, 『朝鮮・韓国ナショナリズム「小国」意識』, ミ  
 ネルヴァ書房

●문의

일본자료센터 TEL (02)880-8503

FAX (02)874-3689

E-Mail miyabi@snu.ac.kr

Homepage <http://sias.snu.ac.kr/japan>